

병아리가 어미닭이 될 때까지 계속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병아리를 길러봤는데 한 20일 동안 열심히 기르다가 하루를 돌보지 않았더니 죽었습니다. 그와 똑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장마가 졌을 때도 가서 떼내려갔는지 매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관리를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성질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잘 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하면 잘 됩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 일으키는 이유는 성격적인 부분이 큼니다. 내가 30년을 해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성격을 못 바꿉니다. 성격은 안 바꿉니다. 신앙은 들어가는데 성격이 안 바꿉니다.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지 80살 때까지 성격을 못 바꿨다.’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교인들 잘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과격한 성격, 혈기 내는 성격, 앙심 품는 성격, 서운 함 타는 성격....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많이 커야 합니다. 크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외국에 있을 때 사람을 전혀 안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만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운하게 했다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이미 사람의 심리를 배웠기에 사람들 만나면 반갑다고 껴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서운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만나면 애기도 많이 하고 스스럼없이 잘 대해 주실 거라 믿고 갔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안 해주니까 서운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쭈파 자기 책임분담으로 가는 것이기에 외국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299.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조금 화가 나면 화나는 꼴을 못 봅니다. 그 분을 못 참고 순간 뒤집어 지고 막 그럽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성격이 불같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차 사고도 제일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격이 불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막 달리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문제를 일으킵니다. 애들 소외감 받고 주눅 들지 않게 잘 해줘야 합니다. 사회 나가 사람들은 맨날 조심해야 합니다. 차사고 나는 것도 보면 자기는 잘 가는데 뒷 차가 받아서 사고 나서 죽고 다치고, 앞차가 받아서 사고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입장은 돌연사고도 있습니다. 나는 잘 가는데 들이받아 놓고 서운함과 섭섭함을 탑니다. 섭섭해 하는 것도 성격입니다.

지방에서 길러놓으면 금방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는 거의 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는 지방교회에서 길러놓은 애들인데 다 거기서 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방에서 계속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신앙 이라는 게 무슨 회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생활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면 큰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읽어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책을 읽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몇 페이지는 원 뜻을 분명한 뜻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살아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지 말라고 해서 구원론을 쓴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책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 잘 썼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휘해서 성경도 다 불러서 쓴 것입니다.